

광양만권 개발사업·투자유치 속도 낸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시행령이 다음달 개정될 것으로 보여 광양만권의 각종 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에 따르면 현재 경자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중이며, 이르면 오는 10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일본 방문 부품·소재업체 유치 나서 좋은 기업·일자리 창출 청년 돌아오는 전남 만들기

◇경자법 시행령, 개발사업 활성화 기대=이번 경자법 시행령 개정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의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 축소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개발비의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단계적 개발 허용대상 단위개발사업 지구 면적이 현행 330만㎡에서 200만㎡로 축소된다. 이는 대단위 면적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 등을 완화시켜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경제자유구역내 토지소유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된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비의 재투자 비율이 현행 25%에서 1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제고돼 개발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경제청,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이에 탄력받은 광양 경제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이낙연 전남도지사과 함께 일본 도쿄, 오사카 일원을 방문해 첨단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



오는 10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광양만권 초기 개발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광양항과 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 축소
현행 330만㎡ → 200만㎡로 개발 초기 자금 부담 완화
- 시행자 자격요건 확대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보장 조합 설립시 시행자 지정 가능
- 개발비의 재투자 비율 완화
현행 25% → 10%로 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될 듯



기능성화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세풍산단 현장조사.



2020 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이희봉 광양만권 경제청장.

섰다. 이번 방문에서 광양 경제청은 도쿄지역 기업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전남 동부권과 경제자유구역 홍보 및 일본기업의 진출을 적극 유도했다. 광양 경제청은 오는 11월에 한국부품소재 투자기관협의회(KITIA)와 공동으로 일본 가와사키·나고야 지역의 부품소재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투자유치 로드쇼에 참가해 첨단산업분야 기업유치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일본지역 부품 소재기업 유치를 위해 (사)오사카가능협회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연말 이전에 광양만권 산업시찰·초청 및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서일본 지역 첨단 부품소재 기업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8월 단행된 전남도 인사에서 광양 경제청 직원들의 대거 승진과 발탁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 의욕이 제고됐다. 이런 변화는 출범 10주년에 접어든 광양 경제청의 탄탄한 조직력과 투자유치의 객관적 평가가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광양경제청은 지난 10년간 153개사,

자본 127억 달러를 유치했으며,이 가운데 외투기업 45개사·자본 42억 달러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은 “적재적소의 인사운용으로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좋은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기에 일조하겠다”면서 “일본 기업 유치와 광양만권 산업인프라 조기정착을 위해 일본의 첨단 부품 소재기업의 경제인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섬진강 문화축제’ 오늘 개막

‘전어 문화축제’ 이름 바뀌 28일까지 망덕포구 일일

‘섬진강 문화축제’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린다.

시는 단순히 전어라는 먹거리 축제를 벗어나 섬진강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국 문화축제로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광양 전어 문화축제’를 ‘섬진강 문화축제’로 이름을 바꿨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섬진강의 멋과 맛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문·화·축·제’의 각 글자별 주제 마당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펼친다.

첫째 날인 26일(문화어는 마당)은 광양 시립국악단 공연과 섬진강 문화가요

제 예선, 섬진강 불꽃놀이, 제1회 섬진강 게이트볼 대회 등이 열린다.

27일(화합 알림 마당)은 제1회 운동주 백일장 사생대회를 비롯해 여자 팔씨름 대회, 전어잡기·재첩줍기 체험, 풍물 뮤지컬(하동소리보존회), 버꾸놀이와 비보이, 전어잡이 노래 시연, 제1회 영·호남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영·호남 화합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마지막 날인 28일(축제 희망 마당)은 찾아가는 섬진강 음악회와 중국 기예단과 남미 인디오 음악단 공연, 영·호남 문화예술인 공연, 제1회 망덕산 등반대회 등의 프로그램에 이어 섬진강 불꽃쇼 행사로 막을 내린다.

이 밖에도 부대행사도 축제 시티투어 운영, 제1회 축제 가족사진 공모전, 선상-길거리 음악회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도 마련된다. 문의(061-797-3679).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 시민의 상’ 체육진흥 김양환, 복지·환경 김정삼씨

광양시는 지난 23일 ‘광양시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체육진흥 부문에 김양환(54) 씨,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에 김정삼(73) 씨를 선정했다.

김양환 씨는 광양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재임하며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 창설과 전지 훈련터 유치, 전국규모 대회 개최(24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체육인프라 조성에도 이바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양시가 제51~53회 전남도 체육대회에서 3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또한 김정삼 씨는 1996년부터 17년간 장애인 자녀 83명에게 17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 재단에 3000여 만원의 장학금 기탁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과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기업공원(임천공원)과 중마동 근린공원 등 8곳의 생태공원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시상식은 10월 8일 ‘제20회 광양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인도네시아 칠레군시와 우호도시 협약

무역·체육·문화 등 교류 증진

광양시와 인도네시아 칠레군시(市)가 25일 시청 상형실에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정현복 광양시장과 이만아리아디 칠레군 시장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상호 이해와 공동번영을 위해 ▲도시계획, 환경, 교통, 항만행정, 교육, 보건,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증진 ▲상호 친선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와 민간단체의 직접적인 연계 및 교류 지원 등에 서로 힘쓰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기업인 크라타우 스틸과 합작

해 칠레군에 연산 300만t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면서 비롯됐다. 현지 근로자 219명이 지난 2012년과 2013년 8차에 걸쳐 광양에서 조업연수를 받으며 광양에 대해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됐고, 우호적인 인士문인 확산되면서 칠레군시에서 도시교류를 적극 제의함에 따라 협약이 성사됐다.

정현복 시장은 “양 도시는 철강과 항만, 축구라는 공통분모를 가졌다”며 “앞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산업뿐만 아니라 무역, 서비스, 체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하드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정수장 앞)

가치와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저희 법인은 기존의 보상 및 담보평가는 물론이고 부동산투자자문, 개발타당성분석, 기업가치 및 부동산 증권화에 수반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업평가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격자와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도 NET-WORK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부동산회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정 대량감정평가 법인
자산재평가 전담팀 운영
공정 가치평가본부 02-2051-28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T.(061)375-6540 F.(061)375-6542